

‘나주 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9부 능선 넘었다

나주시 나주배 가치 보존·계승 추진
농업유산자문위원회 2차 현장 평가
이달 중순 경 최종 지정여부 발표

나주시 대표 특산물인 ‘나주 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최근 나주배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여부를 판가름 할 농업유산자문위원회 2차 현장 평가가 실시됐다고 3일 밝혔다.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촌의 다원적 지원을 보전하고 이를 전승·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주민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에 3년간 1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반세기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농업유산인 나주배의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영산강 나주배 농업유산 시스템’(공식명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7월 농촌진흥청



나주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2차 현장 평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관 TF팀 구성, 농가·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며 유산 지정의 당위성과 절차적 체계성 확보에 힘써왔다.

이어 10월에는 1차 농업유산자문위원회 회의 발표 이후 2차 현장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산 지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이번 현장평가는 금천면나주배박물관 PPT 발표, 3대 째 전통농법으로 배 농사를 지어온 금천면 원곡리 이병곤 농가 방문·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호남 읍지(1871년) 등 역사 문헌에 기록된 나주 배 농업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비롯해 지역 고유의 전통재배농법과 변천사, 배 농업 계승 노력, 생태적 보존 가치 등을 심사위원회에게 적극 어필했다.

나주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주 목의 토공물(土貢物) 목록에 나주배가 포함돼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1871년 발간된 ‘호남읍지’에서도 나주배를 왕에게 바친 진상품으로 기록했다.

농가 현장을 찾은 심사위원회는 나주 배 고유 농법 종 수리 및 저장 체계인 ‘암거배수’와 ‘반지하저장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암거배수’(暗渠排水)는 흙관 방식의 전통농법 수리체계로 대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약 60cm의 토관(내경 10cm)을 배수로에 설치하고 그 위로 자갈, 모래, 벗짚과 같은 유기물을 차례로 덮어 토대를 다진다.

이어 시누대 다발을 토관 사이사이에 세워 자연스럽게 물을 암거 배수구에 따라 흐르게 한다. 토양 배수가 관건인 나주 배 재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법으로 구릉지에서 평야까지 배 재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 쓰였다.

항아리 속 왕겨를 넣어 배를 저장하는 항아리저장법에서 진일보한 ‘반지하 저장법’은 명칭 그대로 반 지하에 땅을 파고 배를 보관하는 방법이다.

이번 현장평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순 경 최종 지정 발표될 예정이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영암군

중소 융자이자 지원 확대

영암군은 관내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 2억원(3년 거치 일시상환)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를 3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당초 융자금 1회(3년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 받은 후에는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영암군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과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의 연속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융자금을 연속 2회(6년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자 3%를 최대 6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영양군

소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영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득안정 지원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한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인근에서 상인조직이 지속적인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과 영양군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업소 당 50만원으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의 소통 캐릭터 ‘부기’
지도 향상을 위해 고정적인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다. ‘소통 캐릭터’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부산의 주요 장소에서 특정 키워드에 대

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 콘텐츠와 비대면으로 부산 여행지를 소개하는 ‘부기’s Pick-부산랜선여행’ 각 10편을 준비했다. 모든 영상은 부산시 유튜브 채널인 ‘B공식채널’에서 공개된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한다. 부산시 인턴으로 활동하는 부기의 소소한 일상과 부기를 활용한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7일에는 총 5만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배포한다. 부기 이모티콘은 움직이는 이모티콘 총 16종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감정표현 위주의 디자인으로 이뤄졌다. 부산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받을 수 있다.

부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하반기에는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부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기를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도록 부기 이미지를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도 SNS 등을 통해 부기 관련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져 본격적으로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기를 만나고 싶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다”며 “부산시민과 소통할 귀여운 부기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라고 전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한전, ‘디지털워크플레이스’ 구축

사외에서도 업무시스템 접속

한국전력은 비대면 시대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워크플레이스(Digital Work Place)’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워크플레이스는 클라우드를 비롯한 모바일, 무선통신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해 3無 즉, 경계 없는(Borderless), 선 없는(Wireless), 종이 없는(Paperless) 디지털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계 없는(Borderless) 환경) 기존 데스크톱 PC를 클라우드와 노트북으로 바꿔 재택이나 출장 등 사

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업무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한국전력은 랜선과 유선전화기를 없애고, 무선랜과 스마트폰을 사내전화와 연동해 필요하면 어디서든 업무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한 보고나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 간단한 업무는 이메일로 비대면 보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불가피하게 대면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로 보고할 파일을 전송하고 스마트폰, 태블릿을 활용해 종이 출력 없이 보고 및 결재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강성대 기자

전남도, 네이버 쇼핑라이브서 농특산물 판매

14일까지 9차례 방송 진행

전라남도는 비대면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네이버 쇼핑라이브 남도장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를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급성장하는 시장이다.

코로나 19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전남도가 시작한 ‘네이버 쇼핑라이브 남도장터’는 지난해 34회 진행했다. 올해 시군과 협업해 방

송 횟수를 대폭 확대, 총 100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1회차 방송은 14일까지 12일간 9차례 진행한다. 고흥 문어비빔밥, 영암 깻잎무침, 곡성 백세미, 장성 사과, 보성 블랙토마토, 담양 찹쌀악과 등 18개 업체 35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회차별 일정과 판매 품목은 전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판로가 어려운 영세 중소농과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까지 지원을 확대해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북구청 관계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자 등에 영양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코로나 힐링 프로젝트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는 이달부터 코로나 19 감염 완치자와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코로나 19 힐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힐링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완치자, 자가격리자, 자가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폐기능 검사 비용, 원예·미술·운동 프로그램, 영양도시락 등을 지원한다.

/광주=강성대 기자